

Market Index / 6일

코스피지수 ▲ 2342.61 +30.75	코스닥지수 ▲ 854.12 +6.84	유가(WTI, 달러) ▲ 42.19 +0.49	환율(원)	1USD 1206.24 100¥ 1142.22	살매 1164.76 팔매 1102.94	1EUR 1433.31 1CNY 179.20	살매 1377.39 팔매 162.14
---------------------------	-------------------------	------------------------------	-------	------------------------------	--------------------------	-----------------------------	-------------------------

‘소비 급감’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 ‘제주’

통계청 2020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 동향 발표 제주 서비스 12.9%·소매 28.1% 하락... 전기 대비 피해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감소세가 1분기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8.1%로 급감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이 줄면서 면세점 판매액이 79.4% 급감한 것이 소매 판매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문 소매점(-17.2%)과 대형마트(-1.9%) 판매액도 감소한 반면, 승용차·연료 소매점(8.4%)과 슈퍼·잡화·편의점(1.1%) 판매액은 다소 늘었다.

전국적으로 제주를 비롯해 서울(-8.3%), 인천(-5.2%), 부산(-1.5%)

등 4개 지역은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 감소 이유로 소매 판매가 줄었다. 반면 전남(10.2%), 충남(8.7%), 광주(8.0%), 전북(7.7%), 충북(7.3%) 등 나머지 12개 지역은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슈퍼·잡화·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며 오히려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하며 이 또한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숙박·음식점(-31.1%)과 예술·스포츠·여가(-47.6%), 운수·창고(-25.1%), 도소매(-15.2%) 등의 생산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반면 금융·보험(7.7%), 보건·사회복지(1.7%) 등의 경우에는 다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제주, 인천(-11.6%), 부산(-5.6%) 등은 숙박·음식, 운수·창고, 도소매 등에서 부진해 감소율이 높았으며, 서울(-0.6%), 전북(-0.7%), 전남(-1.6%) 등의 경우에는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부동산 등에서 호조를 보여 감소율이 낮았다. 김현석기자



제주관광공사 성산포항 면세점.

성산포항 면세점 5년 만에 오늘 문 연다

홍삼·주류·향수·가방 등 선호상품 위주 매장 꾸러

꾸릴 계획이다. 또한 성산읍 등 지역과 함께 하는 쇼핑 인프라 기능에도 충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세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제주 성산포항 면세점이 5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제주관광공사는 성산포항과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을 잇는 카페리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가 지난달 취항함에 따라 면세점 시설공사와 매장 조성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고 7일부터 면세점을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성산포항 면세점을 매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해 163.20㎡(49평)로 조성하는 등 이전 시설(133.44㎡·40평)보다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를 적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면세상품의 대표 품목인 홍삼, 주류, 담배 등을 중점 상품으로 하되 향수와 가방, 선글라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매장을

성산포항 면세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별도의 재개점 기념행사가 없이 7일부터 곧바로 영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성산포항에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며 “제주관광공사 면세점도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공헌활동 등 공격 기능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성산포항 지정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전남 장흥과 제주 성산 구간을 잇던 오렌지호가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면세점 영업을 중단했다. 김현석기자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8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전세가격은 0.20%로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16개 시도 아파트 매매가격 모두 상승했으며, 행정수도 이전설 관련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2.77%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 주 대비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0% 상승했으며, 제주지역은 0.04% 하락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포함, 제주시는 0.05%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역시 세종(2.41%)이 차지했다. 김현석기자



대파 파종 한창 6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대파 파종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경매시장 낙찰률 전국 최저 수준

지지옥션 2020 7월 경매시장 동향보고서 발표

제주지역 경매시장 낙찰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7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2812건으로 이 중 439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3%로 전월

대비 2.2% 감소했으나,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3% 오른 73.3%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293건 중 7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6.3%로 전월보다 4.8% 떨어지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제주보다 낙찰률이 낮은 지역은 경남(24.9%)이 유일하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7.4% 상승한 71.7%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98건이 경매에 부처졌으나, 이 중 12건만 낙찰되면서 낙찰률 13.8%, 낙찰가율은 85.1%를 기록했다. 주거시설은 69건이 진행돼 17건이 낙찰, 낙찰률

24.6%, 낙찰가율 54.8%를 나타냈다. 또한 토지는 경매 진행된 125건 중 48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38.4%, 낙찰가율 74.4%를 기록했다.

한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가 감정가의 100%인 20억 51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제주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2위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전으로 20억 5000만원, 3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소재 전이 20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경제통상진흥원 공유경제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공모전은 주제는 ‘공유도시 제주’ 만들기에 적합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로 ▷지역별 생활편의를 도와주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발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되고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공유제주 플랫폼 활성화 방

안 ▷도내에서 시행중인 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최우수 팀(1명)에게는 300만원, 우수팀(2명) 100만원, 장려팀(2명)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s://jba.or.kr) 또는 공유제주 홈페이지(http://sharejeju.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관영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이 제주도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도 소과형 감귤!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다) 온주 (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